

[19~2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조국을 언제 떠났노,
파초*의 꿈은 가련하다.

남국을 향한 불타는 향수,
너의 넓은 수녀보다도 더욱 외롭구나.

소낙비를 그리는 너는 정열의 여인, [A]
나는 샘물을 길어 네 발등에 붓는다.

이제 밤이 차다,
나는 또 너를 내 머리맡에 있게 하마.

나는 즐겨 너를 위해 종이 되리니,
너의 그 드리운 치맛자락으로 우리의 겨울을 가리우자.

- 김동명, 「파초」 -

* 파초: 잎이 긴 타원형이며 키가 큰 여러해살이풀.

(나) 산비탈엔 들국화가 환—하고 누이동생의 무덤 옆엔 밤
나무 하나가 오뚝 서서 바람이 올 때마다 아득—한 공중
을 향하여 여윈 가지를 내어 저었다. 갈 길을 못 찾는 영혼
같이 절로 눈이 감긴다. 무덤 옆엔 작은 시내가 은실을 굶고
등 뒤에 서적이는 떡갈나무 수풀 앞에 차단—한 비석이
하나 노을에 젖어 있었다. 흰나비처럼 여윈 모습 아슬러 어
느 무형(無形)한 공중에 그 체온이 꺼져 버린 후 밤낮으로
찾아 주는 건 비인 묘지의 물소리와 바람 소리뿐. 동생의
가슴 우엔 비가 나리고 눈이 쌓이고 적막한 황혼이면 별들
은 이마 우에서 무엇을 속삭였는지. 한 줌 흙을 헤치고 나
즉—히 부르면 함박꽃처럼 눈뜰 것만 같애 서러운 생각이
옷소매에 스몄다.

- 김광균, 「수철리(水鐵里)*」 -

* 수철리: 공동묘지가 있던 서울의 한 마을.

(다) 슬프나 즐거오나 옳다 하나 외다 하나
내 몸의 해올 일만 닦고 닦을 뿐이언정
그 빛기 여남은 일이야 분별할 줄 이시랴.

<제 1 수>

내 일 망령된* 줄을 내라 하여 모를쏜가
이 마음 어리기도 임 위한 탓이로세
아무가 아무리 일러도 임이 헤여 보소서.

<제 2 수>

추성(楸城) 진호루(鎭胡樓)* 빛기 울어 예는 저 시내야
므음 호리라* 주야에 흐르는다 [B]
임 향한 내 뜻을 조차 그칠 뉘를 모르나다.

<제 3 수>

피혼 길고 길고 물은 멀고 멀고
아버이 그린 뜻은 많고 많고 하고 하고
어디서 외기러기는 울고 울고 가느니.

<제 4 수>

아버이 그릴 줄을 처음부터 알아마는
임금 향한 뜻도 하늘이 삼겨시니
진실로 임금을 잊으면 그 불효인가 여기노라.

<제 5 수>

- 윤선도, 「견회요(遣懷謠)」 -

* 망령된: 언행이 상식에서 벗어나 주책이 없는.

* 추성 진호루: 함경북도 경원에 있는 누각.

* 므음 호리라: 무엇을 하려고.

19.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와 (나)에서는 현실과 이상의 괴리가 심화되고 있다.
- ② (가)와 (다)는 자연의 섭리를 깨닫는 과정을 보여 주고 있다.
- ③ (나)와 (다)에는 화자가 대상을 만날 수 없는 정황이 나타나 있다.
- ④ (가)~(다)에는 대립적 가치가 첨예하게 표출되고 있다.
- ⑤ (가)~(다)에서는 시간의 변화를 중심으로 시상이 전개되고 있다.

20. 시적 화자의 태도를 중심으로 (가)와 (나)를 비교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에는 대상에 대한 유화적인 태도가, (나)에는 독단적인 태도가 드러난다.
- ② (가)에는 대상에 대한 단정적인 태도가, (나)에는 회의적인 태도가 드러난다.
- ③ (가)에는 대상과의 관계 단절을 두려워하는 태도가, (나)에는 관계 형성을 열망하는 태도가 나타난다.
- ④ (가)에는 현실 상황에 대한 낙천적인 태도가, (나)에는 비판적인 태도가 드러난다.
- ⑤ (가)에는 현실 상황의 변화를 기대하는 태도가, (나)에는 변화될 수 없는 현실 상황을 안타까워하는 태도가 나타난다.

21. [A]와 [B]에 나타난 공통된 표현 효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문답 형식을 통해 친밀감을 드러내고 있다.
- ② 감각적 이미지를 통해 정서를 구체화하고 있다.
- ③ 대구를 통해 안정적인 운율감을 조성하고 있다.
- ④ 반어적 표현을 통해 시적 긴장감을 고조하고 있다.
- ⑤ 어조 변화를 통해 정적인 분위기를 강화하고 있다.

22. (가)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파초를 ‘또’ 머리맡에 둔다고 한 것을 보니, 계속해서 파초를 돌보겠다는 의지를 알 수 있군.
- ② 파초를 위해 ‘종’이 된다고 한 것을 보니, 파초를 아끼는 마음을 알 수 있군.
- ③ 파초의 입을 ‘치맛자락’으로 비유한 것을 보니, 파초는 ‘나’에게 모성적 존재임을 알 수 있군.
- ④ ‘나’와 파초를 ‘우리’로 묶어 표현한 것을 보니, ‘나’는 파초에 대해서 일체감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군.
- ⑤ 파초와 ‘나’가 처한 상황이 차가운 겨울밤인 것을 보니, 시련과 고난의 상황에 놓여 있음을 알 수 있군.

23. (나)의 시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환—하고’, ‘아득—한’ 등의 ‘—’는 시어의 느낌을 풍부하게 한다.
- ② ‘밤나무’의 ‘여윈 가지’는 쓸쓸한 시적 분위기를 형성한다.
- ③ ‘흰나비’는 ‘누이동생’의 여윈 모습을 연상시킨다.
- ④ ‘묘지’는 화자가 죽은 누이를 떠올리는 공간이다.
- ⑤ ‘비’, ‘눈’, ‘별’ 등은 화자의 의지를 상징한다.

24. (다)의 각 수를 연결하여 이해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제1수의 ‘옳다 하나 외다 하나’는 제2수의 ‘아무가’의 행위로 볼 수 있다.
- ② 제2수의 망령된 ‘내 일’은 제3수의 ‘내 뜻’에 상반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 ③ 제3수의 ‘추성’은 제4수의 ‘피’와 ‘물’에 의해 그리움의 대상으로부터 먼 공간으로 인식될 수 있다.
- ④ 제4수의 ‘뜻’은 제5수의 ‘뜻’에 와서 더욱 확대되어 표출된 것으로 볼 수 있다.
- ⑤ 제5수의 ‘임금 향한 뜻’은 제1수의 ‘내 몸의 해울 일’을 직접적으로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5~2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무슨 관청 같은 집도 화산택이는 그리 달갑지 않았다. 아들을 만난 반가움보다도 수세미처럼 엉클리는 심사를 주체할 수 없었다.

빨간 스웨터를 입고 너덧 살 되어 보이는 계집아이가 말꼬리미 화산택이를 바라보고,

“아부지, 이거 누고 응?”

화산택이가 그렇게도 보고 싶어 하던 손녀딸이다.

“할매다!”

“우리 할매?”

“음!”

아들은 맥없는 대답을 하면서 흰 고무신 한 켤레를 내왔다. 화산택이는 걸레로 터실터실 분 발뒤꿈치 더더기를 훑치면서,

“그렇기, 나고는 침 보나…….”

하는데, 아들은 손끝에 짙세기를 걸고 나가 쓰레기통에다 던져 버렸다. 고무신이 대견찮은 것은 아니다. 그러나 길 걷는 데는 짙세기가 고작인데 하니 아직 날도 안 드러난 짙세기가 화산택이는 못내 아까웠다.

다다미방도 어색했지만, 눈이 부시도록 번들거리는 의롱이 두 개나 놓였고, 그 옆에는 앉은키만 한 경대도 놓였다. 벽에는 풀기 없는 무색옷들이 쭈르르 걸렸다. 모든 것이 낯선 것들이었다. ㉠ 모든 것이 손도 못 댈 것 같고 주저스럽고 조심스럽기만 했다. 우선 어디가 구들목이며 어디 어떻게 앉아야 할지, 마치 종이 상전 방에 불러 온 것처럼 앉을 자리부터가 만만치 못했다.

(중략)

화산택이는 아들과 마주 앉고, 며느리는 저만치 떨어져 양말을 기웠다. 모두 말이 없다. 손녀만이 제 아버지 등에 매달렸다, 제 어미 젖가슴에 손을 넣었다가 하는 것을 눈으로 좇고 있던 화산택이는 갑자기 생각이 나서,

“이런 내 정신 봐라.”

그러면서 옆에 둔 보통이를 끌어당겨 풀기 시작했다. 더깨더깨 기운 피죤 때 문은 버선을 들어내고 검은 보통이를 또 하나 들어냈다. 들어낸 보통이를 풀어 헤치고 아들과 며느리 어중간에 밀어 놓으면서,

“묵어 봐라, 꿀밤(도토리)떡이다. 급히 하느라고 진도 덜 빠진 거로 해 노니 좀 딸딸하다만…….”

그러고는 한 덩이를 떼서 손녀를 주었다. 아들도 며느리도 손을 대지 않는다.

“애가 하도 즐긴다 싶어 해 왔다. 벨 맛은 없어도 귀한 거니 묵어 봐라!”

며느리는 힐끗하고 궁둥이만 달싹할 뿐이었고, 아들은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한번 씹어 보던 손녀도 그만 폐폐 하고는 도로 갖다 놓는다. 그러자 아들이,

“저 방에 자리해라. 엄마 곤하겠다!”

“괜찮다. 벌써 잠이 오나!”

“일찍이 자소!”

이래서 화산택이는 몇 해를 두고 벼른 아들네 집이었고 밤을 새워도 모자랄 쌓이고 쌓인 이야기를 할 사이도 경황도 없었다.

[19~2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조국을 언제 떠났노, 성의 파초*의 꿈은 가련하다.

남국을 향한 불타는 향수, 너의 넓은 수녀보다도 더욱 외롭구나. 정서

함강이마지 소낙비를 그리는 너는 정열의 여인, 의인 나는 샘물을 길어 네 발등에 붓는다. [A]

이제 밤이 차다. 독각 나는 또 너를 내 머리맡에 있게 하마.

나는 즐겨 너를 위해 종이 되리니, 평남화 너의 그 드리운 치맛자락으로 우리의 거울을 가리우자. - 김동명, 「파초」 -

* 파초: 잎이 긴 타원형이며 키가 큰 여러해살이풀.

(나) 산비탈엔 들국화가 환—하고 누이동생의 무덤 옆엔 밤나무 하나가 오뚝 서서 바람이 올 때마다 아득—한 공중을 향하여 여원 가지를 내어 저었다. 갈 길을 못 찾는 영혼 같애 절로 눈이 감긴다. 무덤 옆엔 작은 시내가 은실을 굶고 등 뒤에 서적이는 떡갈나무 수풀 앞에 차단—한 비석이 하나 노을에 젖어 있었다. 흰나비처럼 여원 모습 아울러 어느 무형(無形)한 공중에 그 체온이 꺼져 버린 후 밤낮으로 찾아 주는 건 비인 묘지의 물소리와 바람 소리뿐. 동생의 가슴 우엔 비가 나리고 눈이 쌓이고 적막한 황혼이면 별들은 이마 우에서 무엇을 속삭였는지. 한 줌 흙을 헤치고 나 즉—히 부르면 함박꽃처럼 눈뜰 것만 같애 서러운 생각이 옷소매에 스며들었다.

- 김광균, 「수철리(水鐵里)」 -

* 수철리: 공동묘지가 있던 서울의 한 마을.

(다) 슬프나 즐거오나 옳다 하나 외다 하나 내 몸의 해울 일만 닦고 닦을 뿐이언정 그 빛기 여남은 일이야 분별할 줄 이시랴. <제 1 수>

내 일 망령된* 줄을 내라 하여 모를손가 이 마음 어리기도 임 위한 탓이로세 아무가 아무리 일러도 임이 해여 보소서. <제 2 수>

추성(楸城) 진호루(鎭胡樓)* 빛기 울어 예는 저 시내야 } [B] }
므음 호리라* 주야에 흐르는다 }
임 향한 내 뜻을 조차 그칠 뉘를 모르나다. <제 3 수>

외혼 길고 길고 물은 멀고 멀고
아버이 그런 뜻은 많고 많고 하고 하고
어디서 외기러기는 울고 울고 가느니.

<제 4 수>

아버이 그럴 줄을 처음부터 알아마는
임금 향한 뜻도 하늘이 삼겨시니
진실로 임금을 잊으면 그 불효인가 여기노라.

<제 5 수>

- 윤선도, 「전희요(遣懷謠)」 -

- * 망령된: 언행이 상식에서 벗어나 주책이 없는.
- * 추성 진호루: 함경북도 경원에 있는 누각.
- * 므음 호리라: 무엇을 하려고

19.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와 (나)에서는 현실과 이상의 괴리가 심화되고 있다.
- ② (가)와 (다)는 자연의 섭리를 깨닫는 과정을 보여 주고 있다.
- ③ (가)와 (다)에는 화자가 대상을 만날 수 없는 정황이 나타나 있다.
- ④ (가)~(다)에는 대립적 가치가 첨예하게 표출되고 있다.
- ⑤ (가)~(다)에서는 시간의 변화를 중심으로 시상이 전개되고 있다.

20. 시적 화자의 태도를 중심으로 (가)와 (나)를 비교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에는 대상에 대한 유화적인 태도가, (나)에는 독단적인 태도가 드러난다.
- ② (가)에는 대상에 대한 단정적인 태도가, (나)에는 회의적인 태도가 드러난다.
- ③ (가)에는 대상과의 관계 단절을 두려워하는 태도가, (나)에는 관계 형성을 열망하는 태도가 나타난다.
- ④ (가)에는 현실 상황에 대한 낙천적인 태도가, (나)에는 비판적인 태도가 드러난다.
- ⑤ (가)에는 현실 상황의 변화를 기대하는 태도가, (나)에는 변화될 수 없는 현실 상황을 안타까워하는 태도가 나타난다.

21. [A]와 [B]에 나타난 공통된 표현 효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문단 형식을 통해 친밀감을 드러내고 있다. X
- ② 감각적 이미지를 통해 정서를 구체화하고 있다.
- ③ 대구를 통해 안정적인 운율감을 조성하고 있다. X
- ④ 반어적 표현을 통해 시적 긴장감을 고조하고 있다. X
- ⑤ 어조 변화를 통해 정적인 분위기를 강화하고 있다. X

22. (가)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파초를 '또' 머리맡에 둔다고 한 것을 보니, 계속해서 파초를 돌보겠다는 의지를 알 수 있군. O
- ② 파초를 위해 '중'이 된다고 한 것을 보니, 파초를 아끼는 마음을 알 수 있군. O
- ③ 파초의 앞을 '치맛자락'으로 비유한 것을 보니, 파초는 '나'에게 모성적 존재임을 알 수 있군. X
- ④ '나'와 파초를 '우리'로 묶어 표현한 것을 보니, '나'는 파초에 대해서 일체감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군. O
- ⑤ 파초와 '나'가 처한 상황이 차가운 겨울밤인 것을 보니, 시련과 고난의 상황에 놓여 있음을 알 수 있군. O

23. (나)의 시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환—하고', '아득—한' 등의 '—'는 시어의 느낌을 풍부하게 한다.
- ② '밤나무'의 '여윈 가지'는 쓸쓸한 시적 분위기를 형성한다.
- ③ '흰나비'는 '누이동생'의 여윈 모습을 연상시킨다.
- ④ '묘지'는 화자가 죽은 누이를 떠올리는 공간이다.
- ⑤ '비', '눈', '별' 등은 화자의 의지를 상징한다.

24. (다)의 각 수를 연결하여 이해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제1수의 '울다 하나 외다 하나'는 제2수의 '아무가'의 행위로 볼 수 있다. O
- ② 제2수의 망령된 '내 일은 제3수의 '내 뜻'에 상반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X
- ③ 제3수의 '추성'은 제4수의 '외'와 '물'에 의해 그리움의 대상으로부터 먼 공간으로 인식될 수 있다. O
- ④ 제4수의 '뜻'은 제5수의 '뜻'에 와서 더욱 확대되어 표출된 것으로 볼 수 있다. O
- ⑤ 제5수의 '임금 향한 뜻'은 제1수의 '내 몸의 해물 일'을 직접적으로 재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O

[25~2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무슨 관청 같은 집도 화산택이는 그리 달갑지 않았다. 아들을 만난 반가움보다도 수세미처럼 영클리는 심사를 주체할 수 없었다.

빨간 스웨터를 입고 너덧 살 되어 보이는 계집아이가 딸꼬리미 화산택이를 바라보고,

“아부지, 이거 누고 응?”

화산택이가 그렇게도 보고 싶어 하던 손녀딸이다.

“할매대!”

“우리 할매?”

“음!”

아들은 맥없는 대답을 하면서 흰 고무신 한 켤레를 내왔다. 화산택이는 걸레로 터실터실 분 발뒤꿈치 더더기를 훑치면서, “그렇기, 나고는 침 보니…….”

하는데, 아들은 손끝에 짙세기를 걸고 나가 쓰레기통에다 던져 버렸다. 고무신이 대견찮은 것은 아니다. 그러나 길 걷는 데는 짙세기가 고작인데 하니 아직 날도 안 드러난 짙세기가 화산택이는 못내 아까웠다.

다다미방도 어색했지만, 눈이 부시도록 번들거리는 의롱이 두 개나 놓였고, 그 옆에는 앉은키만 한 경대도 놓였다. 벽에는 풀기 없는 무색옷들이 주르르 걸렸다. 모든 것이 낯선 것들이었다. ㉠ 모든 것이 손도 못 댈 것 같고 주저스럽고 조심스럽기만 했다. 우선 어디가 구들목이며 어디 어떻게 앉아야 할지, 마치 종이 상전 방에 불러 온 것처럼 앉을 자리부터가 만만치 못했다.

(중략)

화산택이는 아들과 마주 앉고 머느리는 저만치 떨어져 양말을 기웠다. 모두 말이 없다. 손녀만이 제 아버지 등에 매달렸다. 제 어미 젖가슴에 손을 넣었다가 하는 것을 눈으로 좇고 있던 화산택이는 갑자기 생각이 나서,

“이런 내 정신 봐라.”

그러면서 옆에 둔 보통이를 끌어당겨 풀기 시작했다. 더깨더깨 기운 피죄죄 때 묻은 버선을 들어내고 검은 보통이를 또 하나 들어냈다. 들어낸 보통이를 풀어 헤치고 아들과 머느리 어중간에 밀어 놓으면서,

“묵어 봐라, 꿀밤(도토리)떡이다. 급히 하느라고 진도 덜 빠진 거로 해 노니 좀 딸딸하다만…….”

그러고는 한 덩이를 떼서 손녀를 주었다. 아들도 머느리도 손을 대지 않는다.

“애가 하도 즐긴다 싶어 해 왔다. 벨 맛은 없어도 귀한 거니 묵어 봐라!”

머느리는 힐끗하고 궁둥이만 달짝할 뿐이었고, 아들은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한번 씹어 보던 손녀도 그만 페페 하고는 도로 갖다 놓는다. 그러자 아들이,

“저 방에 자리해라. 엄마 곤하겠다!”

“괜찮다. 벌써 잠이 오나!”

“일찍이 자소!”

이래서 화산택이는 몇 해를 두고 버른 아들네 집이었고 밤을 새워도 모자랄 쌀이고 쌀인 이야기를 할 사이도 경황도 없었다.

(가) 파초 - 김동명

조국(祖國)을 언제 떠났노,
파초(芭蕉)의 꿈은 가련하다.

파초는 조국을 떠나있네요.
파초의 꿈은 당연히 조국으로 돌아가는 거겠지요.
그래서 가련하다고 하는 거죠. ㅋㅋ

떠났노 - 의문

파초의 꿈 - 의인

가련하다 - 정서직접

남국(南國)을 향한 불타는 향수(鄉愁),
너의 낮은 수녀(修女)보다도 더욱 외롭구나.

남국을 향한 향수니까 남국이 조국인가보네요.
왜 외로울까요?
문맥적으로 이유는 하나뿐이죠.
조국을 떠나서 ㅍㅍ
수녀보다 외로울 정도면 얼마나 외로울까요.. ㅍㅍ
여기서 수녀는 외로움의 대명사로 쓰였네요 ㅎㅎ

외롭구나 - 정서직접, 영탄

소낙비를 그리는 너는 정열(情熱)의 여인(女人),
나는 샘물을 길어 네 발등에 붓는다.

조국을 그리워하는 파초에게 정열이란 무엇에 대한 정열이죠?
조국에 대한 정열이겠죠 ㅎㅎ
소낙비를 그리워한다 했는데 조국을 그리워하고 있으니
파초의 조국은 소낙비가 내리는 곳이겠죠.
나는 파초를 위해서 소낙비 대신 샘물을 부어줍니다.
따도남이네요 ㅋㅋ 나란 남자 이런 남자 훗 ㅋㅋ

소낙비/샘물을 길어 ~ 붓는다 - 하강이미지

정열의 여인 - 비유

이제 밤이 차다,
나는 또 너를 내 머리맡에 있게 하마.

밤이 되었습니다.
추우니까 나는 파초를 내 옆으로 데려옵니다.
역시 따도남 ㅋㅋ
'또' 라고 하는 걸로 봐서 한두번이 아닌가봐요 ㅎㅎ

이제 밤이 차다 - 촉각, 시간의 흐름

나는 즐겨 너를 위해 종이 되리니,
너의 그 드리운 치맛자락으로 우리의 겨울을 가리우자.

파초를 위해 종이 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파초는 그리운 고향에서 떨어져 추운 겨울의 현실에 놓여 있네요.
그 현실을 가리자고 하는 걸로 봐서 힘든 현실을 이겨내고
고향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고 볼 수 있겠죠? ㅎㅎ

너의 치맛자락 - 비유, 의인
가리우자 - 시적허용

☺19번.

선지1번. 현실과 이상의 괴리 심화 - 현실은 추운 겨울, 이상은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인데
그 괴리가 심해진 모습은 볼 수 없죠?

왜냐면 마지막에 '겨울을 가리자'라면서 현실 극복의지를 보이고 있잖아요.

이게 안 나왔더라도 심화되는 부분이 없다면 틀린거! 땡

선지2번. 자연의 섭리를 깨닫는 과정 - 이 표현 익숙하지 않나요? ㅎㅎ

07수능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기출에서 같은 용어가 또 나왔다는 건 이제 이걸 개념어로 받아들이라는 거겠죠?

'자연의 섭리'라는 건 자연의 이치, 즉 자연이 돌아가는 모습을 뜻합니다.

봄에는 꽃이 피고, 여름에는 덥고 더 그런거요.

근데 (가)시에서는 자연의 섭리를 깨달아가는 게 아니라

부정적 현실을 이겨내려는 내용이잖아요. 따라서 땡.

선지4번. 대립적 가치 - 없네요 ㅋ

선지5번. 시간의 변화 - 이제 밤이 차다. 있네요.

시간의 변화가 중심인지 아닌지 판단하면서 시간 쓸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다른 시에서 결판이 날테니까요 ㅋㅋ

☺20번.

선지1번. 유화적인 태도 - 첨에 보고 잉? 이게 뭐지? 하셨을텐데 이 문제처럼 두 시를 비교한 경우에는 다른 한쪽 선지를 보면 그 뜻이 뭔지 알 수 있습니다.

(나)는 독단적인 태도라 했으니 유화적이라는 건 어울리는 걸 의미하겠네요.

(가)는 유화적이라고 하기에 좀 그렇고 아니라고 하기에 좀 애매하네요.

냅두고 넘어갑시다. 굳이 쓸데없는 데 시간쓰지 말자구요 ㅋ

선지2번. 단정적인 태도 - 없죠 ㅋ

선지3번. 대상과의 관계 단절을 두려워함 - 예라이 무슨 ㅋ 땡

선지4번. 현실 상황에 대한 낙천적인 태도 - 현실이 춥다고 하고 이겨내려고 하네요.

딱히 낙천적인 태도는 없습니다.

낙천적인 태도라 하면 겨울은 추워도 좋아. 난 어디서든 행복해. 난 언제든지 여길 벗어날 수 있어. 이런 마인드가 나와야되는데 그런 건 아니죠 ㅋㅋ

선지5번. 현실 상황의 변화를 기대하는 태도 - 그러니까 치맛자락으로 겨울(현실)을 가리지.

☺21번.

선지1번. 문답형식 - 질문도 없고 대답도 없고 ㅋ

선지2번. 감각적 이미지 - 소나기, 샘물을 길어 붓는다 - 하강이미지(시각적이미지에 포함) 사실 이전 기출까지는 감각적 이미지라 하면 시,청,후,미,촉각 이 오감에 명확하게 포함되어 있는 것들을 물어봤는데요.

이번에 이 부분을 감각적 이미지라고 한 것으로 보아 앞으로는 자연물은 모두 감각적 이미지라고 판단하면 될 것 같습니다.

대구, 반어, 어조변화 모두 없으므로 나머지 선지는 모두 틀리고 답은 2번.

☺22번.

선지1번. 또 옆에 둔다 = 계속해서 파초를 돌본다 yes

선지2번. 파초를 위해 종이 된다 = 파초를 아낀다. yes

선지3번. 파초잎을 치맛자락에 비유 = 파초가 나의 엄마같은 존재? NO!!

치마? 엄마? 음 그럴 듯하네 이리하면 안 되고

이런 문제는 전체적인 맥락에서 파악해야 됩니다.

파초는 내가 아끼고 돌보는 존재입니다.

파초가 나를 돌보는 내용은 없죠? 따라서 모성적 존재 아닙니다.

선지4번. 우리로 묶었다 = 일체감 yes

선지5번. 차가운 겨울밤 = 시련과 고난의 상황 yes

문제가 너무 쉽네요 답 3번.

이제 (나)를 볼건데요

(나)에 관한 문제 중에 표현법에 관한 문제는 없으니 내용만 파악하면 되겠네요.

(나)는 길게 써있지만 내용은 간단합니다. 누이동생이 묻혀있는 공동묘지에서 누이동생을 그리워하는 내용이네요. 그치만 해설은 해야겠죠? ㅋㅋ

(나) 수철리(水鐵里) - 김광균

산비탈엔 들국화가 환 - 하고 누이동생의 무덤 옆엔 밤나무 하나가 오뚝 서서 바람이 올 때
마다 아득 - 한 공중을 향하여 여윈 가지를 내어 저었다. 갈 길을 못 찾는 영혼 같애 절로
눈이 감긴다.

산에는 들국화가 잔뜩 피어있구요
동생 무덤 옆엔 밤나무가 서 있네요
근데 밤나무를 갈 길 못 찾는 영혼처럼 느끼고 있습니다
아마 동생 같다고 느끼고 있는 거겠죠?

들국화 - 계절감, 시각
여윈 가지를 내어 저었다 - 의인
영혼 같애 - 시적허용

무덤 옆엔 작은 시내가 은실을 굶고 등 뒤에 서격이는 떡갈나무 수풀 앞에 차단 - 한 비석
이 하나 노을에 젖어 있었다.

김광균 시에는 ‘차단한’이라는 단어가 상당히 자주 나오네요 ㅎㅎ
멘탈이 침울한 시인인가 봅니다 ㅋㅋ
암튼 무덤 옆에는 시냇물이 흐르고 뒤에는 떡갈나무가 있네요
그리고 무덤 앞엔 비석이 하나 있습니다.
노을에 젖어 있었다. 이것도 김광균 시 중에 비슷한 표현이 있죠
와사등에서 ‘황혼에 젖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ㅎㅎ
이 사람은 특정표현을 자주 써서 자신의 시라는 걸 나타내려는 걸까요? ㅋㅋ

은실 - 색채
서격이는 - 청각
차단한 - 촉각
노을에 젖어 있었다 - 공감각

흰나비처럼 여윈 모습 아울러 어느 무형(無形)한 공중에 그 체온이 꺼져 버린 후 밤낮으로
찾아 주는 건 비인 묘지의 물소리와 바람 소리뿐. 동생의 가슴 우엔 비가 나리고 눈이 쌓이
고 적막한 황혼이면 별들은 이마 우에서 무엇을 속삭였는지. 한 줌 흙을 헤치고 나즉 - 히
부르면 함박꽃처럼 눈뜰 것만 같애 서러운 생각이 옷소매에 스뻤다.

동생이 죽은 후에 쓸쓸할 거라고 생각해서 안타까워하고 있네요. 동생을 부르면 눈뜰 것
만 같은 생각도 들어서 눈물이 납니다 ㅠㅠ

흰나비처럼 - 색채, 비유 / 물소리, 바람소리 - 청각 / 별 - 시각
서러운 생각이 옷소매에 스뻤다- 정서직접, 형상화

☺19번.

선지3번. 만날 수 없는 정황 - 죽었으니까 맞죠.

☺20번.

선지1번. 독단적인 태도 - 전혀요. 슬퍼하고 그리워하는 마음만 나와있네요.

선지5번. 변화될 수 없는 현실 상황을 안타까워한다 - 그렇죠.

맨 밑에 보면 눈뜰 것만 같애 서러운 생각이 옷소매에 스뻤다. 라고 나와있는데
살아서 일어날 것 같지만 실제론 그럴 수 없는 걸 알기에 서러워서 눈물을 흘리는 장면으로
선지5번의 내용에 해당합니다.

답 5번.

☺23번.

선지1번. 아무의미 없는 선지로 답이 될 수 없습니다.

이게 답이 되려면 시어의 느낌을 풍부하지 않게 하고 있다가 돼야하는데 이상하죠.

선지2번. 쓸쓸한 분위기 - 시 내용이 누이동생을 여의고 혼자 남은 상황이니깐요.

선지3번. 누이가 흰나비처럼 여위었다고 했으니 맞죠.

선지4번. 화자는 묘지에서 누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선지5번. 이 시는 아무 의지도 없습니다.

답5번.

(다)견회요 - 윤선도

1연 - 난 내 할 일만 하고 나머지는 신경 안 쓰겠다.

2연 - 내 일은 어리석지만 입을 위한 것. 누가 뭐라 해도 입이 헤아려라.

3연 - 시냇물처럼 입 향한 내 뜻은 멈추지 않는다.

4연 - 아버지는 멀리 있다. 아버이 그림다. 슬프다.

5연 - 충과 효는 같다. 따라서 임금 잊으면 불효다.

☺24번.

선지1번. 옳다 하나 외다 하나 - 아무가 뭐라고 하는 거. 맞네요.

고전시가에서 이런 게 많이 나오는데

왜냐면 수능에 나오는 시가는 대부분 유배를 가서 임금을 그리워하는 내용인데,
유배는 누군가의 모함으로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당이 나뉘어서 싸우기 때문에 그럴 수 밖에 없지요.

선지2번. 내 일과 내 뜻이 다르다. 똑같습니다.

내 일이건 내 뜻이건 둘 다 입을 위한 것이죠.

선지3번. 피와 물이 머니까 그리움의 대상으로부터 멀다고 볼 수 있겠네요.

선지4번. 4수의 뜻이 5수에 와서 더욱 확대되었다.

‘확대되었다’는 말은 사실 ‘비슷하다’ 와 같은 말로 이해하면 됩니다.

비슷한가요? 비슷하네요 그럼 맞죠.

좀 더 자세히 보면 4수의 뜻은 아버이를 그리워하는 거고

5수의 뜻은 아버이를 그리워하는 효를 충과 연결해서 충을 이야기하고 있으니 확대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선지5번. 임금 향한 뜻이 내 몸의 해올 일이다. 맞췄.

답 2번.

[31~3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1

㉠ 하늘에 깔아 놓
바람의 여울터에서나
속삭이듯 서격이는
나무의 그늘에서나, 새는
노래한다. 그것이 노래인 줄도 모르면서
새는 그것이 사랑인 줄도 모르면서
두 놈이 부리를
서로의 쪽지에 파묻고
다스한 체온을 나누어 가진다.

2

새는 울어
뜻을 만들지 않고,
지어서 교태로
사랑을 가식하지 않는다.

3

— 포수는 한 덩이 낚으로
그 순수를 겨냥하지만,
매양 쓰는 것은
피에 젖은 한 마리 상한 새에 지나지 않는다.

- 박남수, 「새 1」 -

(나) 어머니는 그릇이라 쓰고 읽으신다

그릇이 아니라 그릇이 바른 말이지만
어머니에게 그릇은 그릇이다
물을 담아 오신 ㉡ 어머니의 그릇을 앞에 두고
그릇, 그릇 중얼거리려 보면
그릇에 담긴 물이 편안한 수평을 찾고
어머니의 그릇에 담겨졌던 모든 것들이
사람의 체온처럼 따뜻했다는 것을 깨닫는다
나는 학교에서 그릇이라 배웠지만
어머니는 인생을 통해 그릇이라 배웠다
그래서 내가 담는 한 그릇의 물과
어머니가 담는 한 그릇의 물은 다르다
말 하나가 살아남아 빛나기 위해서는
말과 하나가 되는 사랑이 있어야 하는데
어머니는 어머니의 삶을 통해 말을 만드셨고
나는 사전을 통해 쉽게 말을 찾았다
무릇 시인이라면 하찮은 것들의 이름이라도
뜨겁게 살아 있도록 불러 주어야 하는데
두툼한 개정판 ㉢ 국어사전을 자랑처럼 옆에 두고
서정시를 쓰는 내가 부끄러워진다

- 정일근, 「어머니의 그릇」 -

[A]

[B]

(다) 노래는 심장에, 이야기는 뇌수에 박힌다
처용이 밤늦게 돌아와, 노래로써
아내를 범한 귀신을 꿰어 엮드리게 했다지만
막상 목청을 떼어 내고 ㉣ 남은 가사는
베개에 떨어뜨린 머리카락 하나 건드리지 못한다
하지만 처용의 이야기는 살아남아
㉤ 새로운 노래와 풍속을 짓고 유전해 가리라
정간보가 오선지로 바뀌고
이제 아무도 시집에 악보를 그리지 않는다 [C]
노래하고 싶은 시인은 말 속에 [D]
은밀히 심장의 박동을 골라 넣는다
그러나 내 걱정의 상처는 노래에 쉬이 덧나
다스리는 처방은 이야기일 뿐 [E]
이야기로 하필 시를 쓰며
뇌수와 심장이 가장 긴밀히 결합되길 바란다.

- 최두석, 「노래와 이야기」 -

31. (가)~(다)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시간의 경과에 따라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② 동일한 구절의 반복을 통해 리듬감을 주고 있다.
- ③ 역설적 표현을 통해 시적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 ④ 영탄적 어조를 통해 고조된 감정을 표현하고 있다.
- ⑤ 시적 대상의 의미를 대비하여 주제를 드러내고 있다.

32. ㉠~㉣ 중 <보기> ㉤의 문맥적 의미와 가까운 것만을 고른 것은? [3점]

<보 기>

마을의 한 아이에게 천자문을 주어 읽게 했더니 그 녀석이
읽기를 싫증 내고 짜증을 부리며 “하늘은 푸르고 푸른데 하늘을
나타내는 ㉤ ‘천(天)’이라는 글자는 푸르지 않으니 읽기에
싫증이 나는 것이죠.”라고 합디다. 이 아이의 총명함은 한자를
처음 만들었다는 창힐(蒼頡)을 애타고 괴롭게 만듭니다.

- 박지원, 「창애(蒼厓)에게」 -

- ① ㉠, ㉡ ② ㉠, ㉣ ③ ㉡, ㉣
- ④ ㉢, ㉣ ⑤ ㉢, ㉣

33.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는 인위적이고 가식적인 것에 대한 비판 의식을 담고 있다.
- ② (나)는 일상생활에서 시의 발상을 얻고 있다.
- ③ (가)는 (나)와 달리 연을 구분하여 시상의 흐름을 조절하고 있다.
- ④ (나)는 (가)와 달리 시적 화자가 표면에 드러나 있다.
- ⑤ (가)와 (나) 모두 환상의 세계에 대한 동경 의식이 나타나 있다.

34. [A]~[E]에 대한 감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 ‘그릇’보다는 ‘그릇’이 훨씬 풍부하고 다채로운 의미를 담고 있다는 뜻이군.
- ② [B]: ‘그릇’이라는 말은 창조된 것이고 ‘그릇’이라는 말은 발견된 것이라는 뜻이군.
- ③ [C]: 시와 음악의 분리를 비판하는 것으로 보아 자유시보다 정형시를 선호하는군.
- ④ [D]: 말에 생명을 불어넣어 감동을 주는 시를 쓰고자 하는 바람을 표현하고 있군.
- ⑤ [E]: 덧난 상처를 ‘이야기’로 치유한다면 상처의 원인은 ‘노래’에 있다는 뜻이군.

[35~3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경제학에서는 가격이 한계 비용과 일치할 때를 가장 이상적인 상태라고 본다. ‘한계 비용’이란 재화의 생산량을 한 단위 증가시킬 때 추가되는 비용을 말한다. 한계 비용 곡선과 수요 곡선이 만나는 점에서 가격이 정해지면 재화의 생산 과정에 ㉠ 들어가는 자원이 낭비 없이 효율적으로 배분되며, 이때 사회 전체의 만족도가 가장 커진다. 가격이 한계 비용보다 높아지면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으로 인해 수요량이 줄면서 거래량이 따라 줄고, 결과적으로 생산량도 감소한다. 이는 사회 전체의 관점에서 볼 때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못하는 상황이므로 사회 전체의 만족도가 떨어지는 결과를 ㉡ 낳는다.

위에서 설명한 일반 재화와 마찬가지로 수도, 전기, 철도와 같은 공익 서비스도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 생각하면 한계 비용 수준으로 가격(=공공요금)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부분의 공익 서비스는 초기 시설 투자 비용은 막대한 반면 한계 비용은 매우 적다. 이러한 경우, 한계 비용으로 공공요금을 결정하면 공익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은 손실을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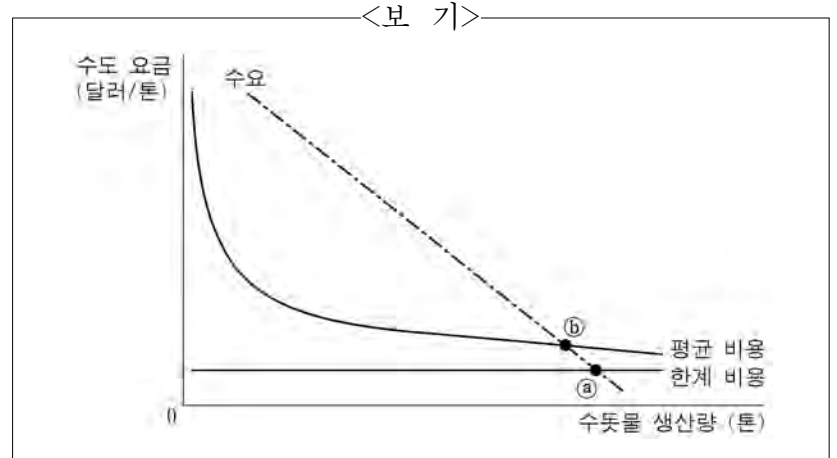
예전대 초기 시설 투자 비용이 6억 달러이고, 톤당 1달러의 한계 비용으로 수돗물을 생산하는 상수도 서비스를 가정해 보자. 이때 수돗물 생산량을 ‘1톤, 2톤, 3톤, ...’으로 늘리면 총비용은 ‘6억 1달러, 6억 2달러, 6억 3달러, ...’로 늘어나고 [A] 톤당 평균 비용은 ‘6억 1달러, 3억 1달러, 2억 1달러, ...’로 지속적으로 줄어든다. 그렇지만 평균 비용이 계속 줄어들더라도 한계 비용 아래로는 결코 내려가지 않는다. 따라서 한계 비용으로 수도 요금을 결정하면 총비용보다 총수입이 적으므로 수도 사업자는 손실을 보게 된다.

이를 해결하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정부가 공익 서비스 제공 기업에 손실분만큼 보조금을 ㉣ 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공공요금을 평균 비용 수준으로 정하는 것이다. 전자의 경우 보조금을 세금으로 충당한다면 다른 부문에 들어갈 재원이 ㉤ 줄어드는 문제가 있다. 평균 비용 곡선과 수요 곡선이 교차하는 점에서 요금을 정하는 후자의 경우에는 총수입과 총비용이 같아져 기업이 손실을 보지는 않는다. 그러나 요금이 한계 비용보다 높기 때문에 사회 전체의 관점에서 자원의 효율적 배분에 문제가 생긴다.

35. 위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될 때 사회 전체의 만족도가 극대화된다.
- ② 가격이 한계 비용보다 높은 경우에는 한계 비용과 같은 경우에 비해 결국 그 재화의 생산량이 줄어든다.
- ③ 공익 서비스와 일반 재화의 생산 과정에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한 조건은 서로 같다.
- ④ 정부는 공공요금을 한계 비용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보조금 정책을 펼 수 있다.
- ⑤ 평균 비용이 한계 비용보다 큰 경우, 공공요금을 평균 비용 수준에서 결정하면 자원의 낭비를 방지할 수 있다.

36. <보기>는 [A]의 내용을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위 글과 관련지어 이해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a에서 수도 요금을 결정하면 수도 사업자는 손실을 본다.
- ② a에서 수도 요금을 결정하면 수도 요금은 톤당 1달러이다.
- ③ b에서 수도 요금을 결정하면 수도 사업자의 총수입과 총비용은 같다.
- ④ 수돗물 생산량이 증가함에 따라 평균 비용과 한계 비용의 격차가 줄어든다.
- ⑤ 요금 결정 지점이 a에서 b로 이동하면 사회 전체의 만족도는 증가한다.

37. 문맥상 ㉠~㉤과 바꾸어 쓰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투입(投入)되는
- ② ㉡: 초래(招來)한다
- ③ ㉢: 추정(推定)하면
- ④ ㉣: 지급(支給)하는
- ⑤ ㉤: 감소(減少)하는

[31~3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1

① 하늘에 갈아 논
바람의 여울터에서나
속삭이듯 서적이는
나무의 그늘에서나, 새는
노래한다. 그것이 노래인 줄도 모르면서
새는 그것이 사랑인 줄도 모르면서
두 놈이 부리를
서로의 쪽지에 파묻고
다스한 체운을 나누어 가진다.

2

새는 울어
뜻을 만들지 않고
지어서 교태로
사함을 가식하지 않는다.

3

—포수는 한 덩이 남으로
그 순수를 겨냥하지만,
매양 쏘는 것은
피에 젖은 한 마리 상한 새에 지나지 않는다.

- 박남수, 「새 1」-

(나) 어머니는 그릇이라 쓰고 읽으신다

그릇이 아니라 그릇이 바른 말이지만
어머니에게 그릇은 그릇이다
물을 담아 오신 ㉠ 어머니의 그릇을 앞에 두고
그릇, 그릇 중얼거리려 보면
그릇에 담긴 물이 편안한 수평을 찾고
어머니의 그릇에 담겨졌던 모든 것들이
사람의 체온처럼 따뜻했다는 것을 깨닫는다
나는 학교에서 그릇이라 배웠지만
어머니는 인생을 통해 그릇이라 배웠다
그래서 내가 담은 한 그릇의 물과
어머니가 담은 한 그릇의 물은 다르다
말 하나가 살아남아 빛나기 위해서는
말과 하나가 되는 사랑이 있어야 하는데
어머니는 어머니의 삶을 통해 말을 만드셨고
나는 사전을 통해 쉽게 말을 찾았다
무릇 시인이려면 하찮은 것들의 이름이라도
뜨겁게 살아 있도록 불러 주어야 하는데
두툼한 개정판 ㉡ 국어사전을 자랑처럼 옆에 두고
서정시를 쓰는 내가 부끄러워진다

- 정일근, 「어머니의 그릇」-

[A]

[B]

(다) 노래는 심장에, 이야기는 뇌수에 박힌다
처용이 밤늦게 돌아와, 노래로써
아내를 범한 귀신을 풀어 없드리게 했다지만
막상 목청을 때어 내고 ㉢ 남은 가사는
베개에 떨어뜨린 머리카락 하나 건드리지 못한다
하지만 처용의 이야기는 살아남아
④ 새로운 노래와 풍속을 짓고 유전해 가리라
정간보가 오선지로 바뀌고
이제 아무도 시집에 악보를 그리지 않는다 [C]
노래하고 싶은 시인은 말 속에 [D]
은밀히 심장의 박동을 골라 넣는다
그러나 내 걱정의 상처는 노래에 귀이 덧나
다스리는 처방은 이야기일 뿐 [E]
이야기로 하필 시를 쓰며
뇌수와 심장이 가장 긴밀히 결합되길 바란다.

- 최두석, 「노래와 이야기」-

31. (가)~(다)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시간의 경과에 따라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② 동일한 구절의 반복을 통해 리듬감을 주고 있다.
- ③ 역설적 표현을 통해 시적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 ④ 열탄적 어조를 통해 고조된 감정을 표현하고 있다.
- ⑤ 시적 대상의 의미를 대비하여 주제를 드러내고 있다.

32. ㉠~㉢ 중 <보기> ㉡의 문맥적 의미와 가까운 것만을 고른 것은? [3점]

<보 기>

마음의 한 아이에게 천자문을 주어 읽게 했더니 그 녀석이
읽기를 싫증 내고 짜증을 부리며 "하늘은 푸르고 푸른데 하늘을
나타내는 ㉡ '천(天)'이라는 글자는 푸르지 않으니 읽기에
싫증이 나는 것이죠"라고 합니다. 이 아이의 총명함은 한자를
적음 만들었다는 창힐(蒼頡)을 예라고 괴롭게 만듭니다.

- 박지현, 「창에(蒼隗)에게」-

- ① ㉠, ㉡ ② ㉢, ㉡ ③ ㉠, ㉡
- ④ ㉠, ㉢ ⑤ ㉡, ㉢

33.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는 인위적이고 가식적인 것에 대한 비판 의식을 담고 있다. ◯
- ② (나)는 일상생활에서 시의 발상을 얻고 있다. ◯
- ③ (가)는 (가)와 달리 연을 구분하여 시상의 흐름을 조절하고 있다. ◯
- ④ (나)는 (가)와 달리 시적 화자가 표현에 드러나 있다. ◯
- ⑤ (가)와 (나) 모두 환상의 세계에 대한 동경 의식이 나타나 있다. ✕

34. [A]~[E]에 대한 감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 '그릇'보다는 그릇이 훨씬 풍부하고 다채로운 의미를 담고 있다는 뜻이군. X
- ② [B]: '그릇'이라는 말은 창조된 것이고 '그릇'이라는 말은 발전된 것이라는 뜻이군. X
- ③ [C]: 시와 음악의 분리를 비판하는 것으로 보아 자유시보다 정형시를 선호하는군. X
- ④ [D]: 말에 생명을 불어넣어 감동을 주는 시를 쓰고자 하는 바람을 표현하고 있군. O
- ⑤ [E]: 덧난 상처를 '이야기'로 치유한다면 상처의 원인은 '노래'에 있다는 뜻이군. X

[35~3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경제학에서는 가격이 한계 비용과 일치할 때를 가장 이상적인 상태라고 본다. '한계 비용'이란 재화의 생산량을 한 단위 증가시킬 때 추가되는 비용을 말한다. 한계 비용 곡선과 수요 곡선이 만나는 점에서 가격이 정해지면 재화의 생산 과정에 ㉠ 들어가는 자원이 낭비 없이 효율적으로 배분되며, 이때 사회 전체의 만족도가 가장 커진다. 가격이 한계 비용보다 높아지면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으로 인해 수요량이 줄면서 거래량이 따라 줄고 결과적으로 생산량도 감소한다. 이는 사회 전체의 관점에서 볼 때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못하는 상황이므로 사회 전체의 만족도가 떨어지는 결과를 ㉡ 낳는다.

위에서 설명한 일반 재화와 마찬가지로 수도, 전기, 철도와 같은 공익 서비스도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 생각하면 한계 비용 수준으로 가격(=공공요금)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부분의 공익 서비스는 초기 시설 투자 비용은 막대한 반면 한계 비용은 매우 적다. 이러한 경우, 한계 비용으로 공공요금을 결정하면 공익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은 손실을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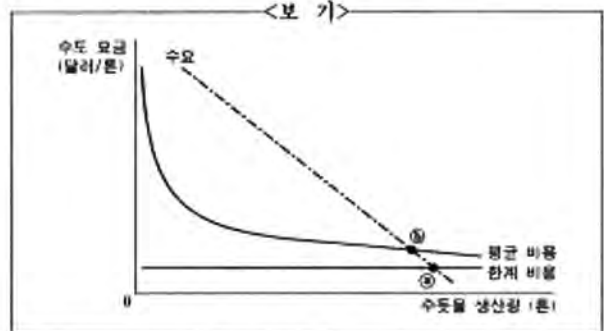
예컨대 초기 시설 투자 비용이 6억 달러이고 톤당 1달러의 한계 비용으로 수도물을 생산하는 상수도 서비스를 가정해 보자. 이때 수도물 생산량을 '1톤, 2톤, 3톤, ...'으로 늘리면 총비용은 6억 1달러, 6억 2달러, 6억 3달러, ...로 늘어나고 [A] 톤당 평균 비용은 6억 1달러, 3억 1달러, 2억 1달러, ...'로 지속적으로 줄어든다. 그렇지만 평균 비용이 계속 줄어든다 해도 한계 비용 아래로는 결코 내려가지 않는다. 따라서 한계 비용으로 수도 요금을 결정하면 총비용보다 총수입이 적으므로 수도 사업자는 손실을 보게 된다.

이를 해결하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정부가 공익 서비스 제공 기업에 손실분만큼 보조금을 ㉣ 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공공요금을 평균 비용 수준으로 정하는 것이다. 전자의 경우 보조금을 세금으로 충당한다면 다른 부문에 들어갈 재원이 ㉤ 줄어드는 분계가 있다. 평균 비용 곡선과 수요 곡선이 교차하는 점에서 요금을 정하는 후자의 경우에는 총수입과 총비용이 같아져 기업이 손실을 보지는 않는다. 그러나 요금이 한계 비용보다 높기 때문에 사회 전체의 관점에서 자원의 효율적 배분에 문제가 생긴다.

35. 위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될 때 사회 전체의 만족도가 극대화된다.
- ② 가격이 한계 비용보다 높은 경우에는 한계 비용과 같은 경우에 비해 결국 그 재화의 생산량이 줄어든다.
- ③ 공익 서비스와 일반 재화의 생산 과정에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한 조건은 서로 같다.
- ④ 정부는 공공요금을 한계 비용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보조금 정책을 펼 수 있다.
- ⑤ 평균 비용이 한계 비용보다 큰 경우, 공공요금을 평균 비용 수준에서 결정하면 자원의 낭비를 방지할 수 있다.

36. <보기>는 [A]의 내용을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위 글과 관련지어 이러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에서 수도 요금을 결정하면 수도 사업자는 손실을 본다.
- ② ㉡에서 수도 요금을 결정하면 수도 요금은 톤당 1달러이다.
- ③ ㉢에서 수도 요금을 결정하면 수도 사업자의 총수입과 총비용은 같다.
- ④ 수도물 생산량이 증가함에 따라 평균 비용과 한계 비용의 격차가 줄어든다.
- ⑤ 요금 결정 저점이 ㉠에서 ㉤로 이동하면 사회 전체의 만족도는 증가한다.

37. 문맥상 ㉠~㉤과 바꾸어 쓰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투입(投入)되는
- ② ㉡: 초래(招來)한다
- ③ ㉢: 추정(推定)하면
- ④ ㉣: 지급(支給)하는
- ⑤ ㉤: 감소(減少)하는

12. 9월 평가원 31~34번

(가) 새1- 박남수

1

하늘에 깔아 놓
바람의 여울터에서나
속삭이듯 서걱이는
나무의 그늘에서나, 새는
노래한다. 그것이 노래인 줄도 모르면서

여울터나 나무 그늘이나 아무데서나 새는 노래합니다.

근데 그게 노래인 줄 모르나봐요.

화자는 노래에 어떤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하늘에 깔아 놓 바람의 여울터에서나 / 속삭이듯 서걱이는 나무의 그늘에서나

- 유사한 통사구조의 반복

~에서나 새는 노래한다. 그것이 노래인 줄도 모르면서 - 도치

새는 그것이 사랑인 줄도 모르면서
두 놈이 부리를
서로의 쪽지에 파묻고
다스한 체온을 나누어 가진다.

여기서 그것은 밑에 나온 새가 하는 행동들이겠죠?

‘두 놈이 ~ 체온을 나누어 가진다.’ 이 구절이 그것에 해당하고

이게 화자는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ㅎㅎ

1연에 나온 노래를 사랑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노래를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ㅎㅎ

2

새는 울어
뜻을 만들지 않고,
지어서 교태로
사랑을 가식하지 않는다.

새는 '뜻을 만들지' 않고,
사랑을 가식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뜻을 만든다는 구절은
문맥적 읽기를 하면 사랑을 가식하지 않는다는 뜻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도식화하면 '새는 not A, not 사랑을 가식' 이라는 형태니까
A는 사랑을 가식한다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죠 ㅎㅎ

~하여 ~를 ~하지 않는다. - 유사한 통사구조의 반복

3

**-포수는 한 덩이 낱으로
그 순수를 겨냥하지만,
매양 쓰는 것은
피에 젖은 한 마리 상한 새에 지나지 않는다.**

시인은 앞에 나온 새들의 행동들(노래 부르고, 체운을 나누고)을
순수라고 표현하고 있네요.

근데 포수는 그 순수를 겨냥하지만

총에 맞은 것은 포수가 노렸던 순수가 아니라

다친 새에 불과합니다.

여기엔 뭐 여러 해석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건 보기를 통해 주어질테니까 신경쓸 필요는 없고

시 자체로만 해석을 해볼게요.

그대로 읽기를 통해 시어를 먼저 파악해봅시다 ㅋㅋ

포수는 새를 쏘는 대상, 상하게 하는 사람.

낱은 새를 상하게 하는 대상.

문제에 따라서 포수와 낱을 같은 의미로 볼 수도 있고

포수를 주체, 낱을 수단으로 볼 수도 있겠죠?

새는 당하는 대상.

뭐 이정도가 되겠는데 이 부분을 해석하면

화자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대상(새)를

포수가 상하게 하는데 막상 낱을 통해서 잡고나면 다른 대상이 된다. 달라진다.

낱, 순수 - 대비

☺31번.

선지1번. 시간의 경과 - 시간의 표현 자체가 전혀 없죠

선지2번. 동일한 구절의 반복 - 유사 구절의 반복은 있지만 동일 구절은 없습니다.

선지3번. 역설 - 없습니다.

선지4번. 영탄 - 이것도 없네요 ㅋㅋ

선지5번. 시적 대상의 의미를 대비 - 시 설명할 때 있었죠? ㅇㅋ

따라서 답 5번.

☺33번.

선지1번. 인위적이고 가식적인 것에 대한 비판 의식 - 새는 울어 뜻을 만들지 않고, 지어서 교태로 사랑을 가식하지 않는다. 라는 구절에서 알 수 있네요 ok

선지3번. 연을 구분 - 눈 있으면 알 수 있습니다 ㅋㅋ ok

선지4번. '(가)와 달리'니까 시적 화자가 표면에 없어야 되는데 없네요 ok

선지5번. 환상 세계.. 미쳤습니다. ㅋㅋ 수능에서 환상이라는 말을 쓰는 것은 현실에서 일어날 수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릉도원 같은 걸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답 5번.

시 하나 했는데 두 문제나 답이 나와버리네요.. 난이도 낮추려고 걱정했습니다 ㅠㅠ

☺32번. 33번은 (나),(다)가 섞인 문제라서 (다)까지 해석하고 볼게요 ㅎㅎ

(나)어머니의 그릇 - 정일근

어머니는 그릇이라 쓰고 읽으신다
 그릇이 아니라 그릇이 바른 말이지만
 어머니에게 그릇은 그릇이다

그릇이 맞는데 어머니는 그릇이라고 하시는 이유가 나오겠네요 ㅎㅎ

물을 담아 오신 어머니의 그릇을 앞에 두고
 그릇, 그릇 중얼거려보면
 그릇에 담긴 물이 편안한 수평을 찾고
 어머니의 그릇에 담겨졌던 모든 것들이
 사람의 체온처럼 따뜻했다는 것을 깨닫는다

여기선 그릇이 아니라
 그릇이라고 표현하면서 그릇의 의미에 대해 말하고 있네요
 그릇에 담긴 것은 어떨죠?
 편안해지고, 체온처럼 따뜻해지네요
 이게 그릇의 의미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릇 - 반복
 따뜻 - 촉각

**나는 학교에서 그릇이라 배웠지만
어머니는 인생을 통해 그릇이라 배웠다
그래서 내가 담는 한 그릇의 물과
어머니가 담는 한 그릇의 물은 다르다**

어머니는 인생을 통해 그릇이라 배웠기 때문에
편안하고 따뜻하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제 나의 그릇이랑 어머니의 그릇을 비교하면서
어떻게 다른지 자세히 설명하겠죠?

**말 하나가 살아남아 빛나기 위해서는
말과 하나가 되는 사랑이 있어야 하는데
어머니는 어머니의 삶을 통해 말을 만드셨고
나는 사전을 통해 쉽게 말을 찾았다**

말이 빛나기 위해선 말과 하나가 되는 사랑이 있어야한답니다.
근데 어머니의 그릇은 사랑이 있었죠?
한편, 어머니는 삶을 통해 말을 만드셨다고 했으니
삶을 통해 말을 만든 말은 사랑이 있어서 빛난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나는 사전을 통해 쉽게 말을 찾습니다.
어머니의 말과 대비시키고 있는데
그렇다면 자신의 말은 사랑이 없이 쉽게 찾아서 빛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겠죠.
자기성찰이 있네요

~는 ~를 통해 ~를 ~했다 - 대구

**무릇 시인이라면 하찮은 것들의 이름이라도
뜨겁게 살아있도록 불러주어야 하는데
두툼한 개정판 국어사전을 자랑처럼 옆에 두고
서정시를 쓰는 내가 부끄러워진다**

바로 윗 연과 같은 내용입니다.
인생을 통해서 사랑을 담지 않고, 국어사전에서 찾아 쉽게 시를 쓰는
자신을 돌아보면서 반성하고 있네요.

뜨겁게 - 촉각

부끄러워진다 - 정서 직접

(다) 노래와 이야기 - 최두석

노래는 심장에, 이야기는 뇌수에 박힌다

노래는 감성으로 이야기는 이성으로 받아들인다는 말인 듯 하네요 ㅋㅋ

**처용이 밤늦게 돌아와, 노래로써
아내를 범한 귀신을 꿰어 옆드리게 했다지만
막상 목청을 떼어내고 남은 가사는
베개에 떨어뜨린 머리카락 하나 건드리지 못한다**

처용의 고사를 인용했는데요
그 고사를 모르는 사람은 이게 뭘까 싶겠네요 ㅋㅋ
처용이 자신의 집에 들어갔는데
귀신이 처용의 아내를 범하여 발이 네 개였어요
근데 처용은 화를 내지 않고 노래를 부르고 춤을 췄습니다
그러자 귀신이 그 관용에 감동해서 사죄했다는 어이없는 고사예요 ㅋㅋ
암튼 노래는 아까 감성이라고 했죠.
감성은 귀신을 꿰어 옆드리게하지만
남아 있는 가사(이야기를 뜻하겠죠?)는 머리카락도 건드리지 못한다고 했네요
감동을 주지 못한다는 얘기겠죠?
왜냐면 노래는 감동을 주고, 이야기는 A하지 못한다고 했으니
A에 들어갈 내용은 감동을 준다는 게 되겠죠
여기선 노래를 찬양하고 이야기를 깎니다 ㅎㅎ

노래/가사 - 대비

**하지만 처용의 이야기는 살아 남아
새로운 노래와 풍속을 짓고 유전해 가리라**

이번엔 이야기의 좋은 점을 얘기하네요
감동은 주지 못하지만 노래를 만들고 풍속을 만들고 전해져간다.
도구의 역할을 한다는 의미 정도가 되겠네요 ㅎㅎ

가리라 - 영탄

정간보가 오선지로 바뀌고

이제 아무도 시집에 악보를 그리지 않는다

정간보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오늘날의 오선지에 해당하는 노래를 쓰는 종이 같은 거겠죠
이제 아무도 시집에 악보를 그리지 않는다고 한 걸로 봐서
예전엔 시집에 악보를 그렸었나 봅니다
예전에는 노래와 시가 하나였다 이런 의미겠죠
근데 이제 노래가 시와 분리돼서
아무도 시집에 노래를 쓰지 않네용

노래하고 싶은 시인은 말 속에

은밀히 심장의 박동을 골라 넣는다

이젠 시로 노래할 수 없으니
대신에 노래하고 싶은 시인은 심장의 박동(감성을 의미하겠죠잉)을 넣습니다

박동을 넣는다 - 형상화(박동은 만질 수 없는데 만질 수 있는 것처럼 표현했으니)

그러나 내 걱정의 상처는 노래에 쉬이 덧나

다스리는 처방은 이야기일 뿐

이야기로 하필 시를 쓰며

뇌수와 심장이 가장 긴밀히 결합되길 바란다.

그런데 노래는 걱정의 상처를 쉽게 덧나게 합니다
노래는 심장을 건드리기 때문에 감성에 쉽게 치우치게 된다
이런 의미인 듯.
그래서 이야기로 치유를 합니다.
감성을 많이 사용하는 광고기획자 같은 사람들은
슬 때 슬픈 영화를 안 보고 웃고 떠드는 가벼운 영화를 본다고 하더라고요
슬픈 영화를 보면 감성을 소모하게 돼서 오히려 더 힘들어진다고
암튼 이런 맥락에서 보면 이 시가 무슨 말 하는지 이해가 좀 되네요
시인은 이성과 감성이 적절히 조화되어 좋은 시를 쓰기를 바라면서 끝내네요 ㅋㅋ

☺32번.

대상의 본질을 전달하지 못하는 껍데기를 찾으라는 문제네요.

(가)에선 '피에 젖은 한 마리 상한 새'가 여기에 해당하겠죠. 근데 보기엔 없네요.

(나)에선 '국어사전'이 여기에 해당하죠.

(다)에선 '남은 가사'가 여기에 해당하겠네요.

왜냐면 남은 가사는 '머리카락 하나 건드리지 못한다'고 표현했으니까요.

따라서 답은 4번.

☺33번.

선지2번. 일상생활 - 기출에 자주 나오는 선지표현입니다 ㅎㅎ 일상생활 맞죠.

선지3번. 연 구분 안했죠. ok

선지4번. 시적 화자가 표면에 - 1인칭 표현이 있습니다 ok

선지5번. 환상세계 아니라규!!!! ㅋㅋㅋㅋㅋㅋ -_-ㅋ

☺34번. 감상으로 적절한 거 찾으라는 문제네요

그렇다면 틀린 걸 지우는 것보다 그냥 글 주제 찾는 게 빠릅니다.

(나)의 주제는 어머니의 그릇은 인생을 통해 배운 것이라 빛난다. 이거구요.

(다)의 주제는 감성과 이성이 조화된 시를 쓰고 싶다. 이겁니다.

찾아봤더니 선지4번이 딱 맞네요. OK

이제 하나씩 봐볼게요 ㅎㅎ

선지1번. 그릇이 다채로운 의미 - 그릇은 그릇보다 안 좋은 거예요. 당연히 틀렸죠.

그리고 만약 그릇이 다채로운 의미라고 나와도 맞다곤 할 수 없어요. 왜냐면 빛나고 살아있는 말이라고 했지 의미가 다양하다고 한 건 아니니까요. 무조건 긍정/부정으로 따져서 답을 찾으려면 틀릴 수가 있습니다.

선지2번. 뭘 소린지 모르겠습니다.... (나)에서 그릇과 그릇의 차이는 창조/발견의 차이가 아니죠. 땡

선지3번. 정형시를 더 좋아한다. - 뭐래 애 ㅋㅋ 어떻게 알아 ㅋㅋ

선지4번. 감동을 주는 시를 쓰고자 한다. 오키얌 너 답.

선지5번. 상처의 원인이 노래 - 노래가 덧나게 한다 그랬으니 노래는 상처의 원인이 아니죠. 덧나는 건 이미 난 상처를 심하게 만드는 거죠. 땡